산업통상자원부 |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9. 12.(목) 11:00 < 9.13.(금) 조간 > | 배포 2024. 9. 12.(목)

인도태평양 지역 14개국 첫 공급망 위기 대응 모의훈련 실시

- IPEF 공급망 위기대응네트워크 의장국으로 모의훈련 주도하며 리더십 발휘
- 공급망 위기 상시화 속 다자 협력에 기반해 '더 강한 집단 회복력' 구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현지 기준 9.13일 워싱턴 D.C.에서 우리나라 주도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14개 회원국 합동 공급망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 7.24일 IPEF 공급망 협정 이행기구 중 하나인'위기대응네트워크(Crisis Response Network, CRN)'의장국으로 선출되어 공급망 교란시 회원국간 공조를 이끌어내는 총사령부 역할을 맡게 되었다. 이번 모의훈련은 우리나라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첫 무대이다.

금번 모의훈련에서는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물류 대란으로 피해를 입은 A국이 의장국인 우리나라에 긴급회의 개최를 요청하여 비상 소집하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할 계획이다. 첫 훈련인만큼 위기대응네트워크의 작동 메커니즘을 전체 회원국이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훈련 중에 파악된 미흡한 점은 필요시 운영세칙 개정, 제도개선, 협력사업 등으로 형태로 보완할 예정이다.

동 훈련에서 수출국 그룹은 기존 거래선의 생산량 증대, 대체 공급기업 발굴, 신속 통관·운송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A국을 포함한 수입국 그룹은 각국의 비축 현황 및 방출계획을 공유하고 매점매석 제한 등 수요관리를 통한 가격 안정화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이에 더해 IPEF 역외국가로부터 추가적인 공급처를 발굴하여 조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번 모의훈련은 14개 회원국의 공급망 취약품목 수급 현황과 지원 가능 조치를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실제 위기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프로세스를 정립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공급망 위기가 언제, 어디에서 촉발될지 모르는 지금이 다자 협력에 기반한 더 강한 집단 회복력(collective resilience)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며 "위기대응 네트워크가 인태지역 국가간 서로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일종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국, 일본과 함께 적극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금일 산업부가 발표한 CRN 로드맵에 따르면 모의훈련은 감염병 확산, 자연재해, 병목 발생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연 2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의장국인 우리나라에서 CRN 회의와 함께 대면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의장국 수임 2년간 역내 개도국의 공급망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이니셔티브를 적극 개발하고, 공급망 위기 대응 모범 사례와 정책을 공유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회원국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CRN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담당 부서	신통상전략지원관 신통상전략과	책임자	과 장	윤선영 (044-203-4870)
		담당자	사무관	원미경 (044-203-4871)
	신통상전략지원관 공급망위기대응네트워크TF	책임자	팀 장	지민정 (044-203-4872)
		담당자	사무관	장재희 (044-203-487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